"박근혜, 예산안날치기 입장 밝혀라"

야4당, 한나라 텃밭 부산서 규탄대회 개최 여권분열 부채질

민주당은 전국 순회투쟁 사흘째인 16일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 공동집회를 개최,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입을 열고 있지 않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공격하며 여권 내분열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역 광장에서 '예산안 날치기 처리 규탄대회' 및 '부산 상수원 식수대책 촉구 부산 시민결의대회'를 열고 예산안 무효화와 함께 대통령 사과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부와 여당의 2011년도 예산안 날치기 처리 이후 거리로 나서 전국 순회 중인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 4당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손 대표는 전날 오후 부산을 찾아 철야 천막농성과 날치기 무효화 및 부산 상수원 대책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이날 오전에는 부산 시민사회단체에 이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성에 대해 밝히고, 부산시에 부산 상수원 식수 재앙 대책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또 낙동강 공사 과정에서 불법 매립토가 발견된 경남 김해 상동 매립지를 방문, 4대강 공사 중단을 촉구했으며 오전 잠시 상경,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구제역 피해보고를 받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빚어진 한나라당의 내홍이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자칫 대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여권의 분란을 부추기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정조준, "'박근혜표 복지'는 예산이 필요 없는 복지인가",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며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표명을 압박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세종안 수정안 부결 사태에서 경험했듯 박 전 대표가 '침묵'을 깰 경우 예산안 무효투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도 청와대와 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쟁점법안 처리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뒤늦은 선언"이라며 "엉터리 날치기에 대해 반성하고 원위치부터 시키는 게 순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날치기 예산은 탈법.불법 종합선물세트"라며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연금법 등을 위반한 편성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중단 위기와 건보 가입자 부담 가중, 장애인 혜택 감소를 초래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동시에 "야당도 '쪽지예산'으로 챙길 것은 다 챙겼다"는 한나라당의 역공에 맞서 "물타기식 물귀신 작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재반격을 시도했다. 원내 지도부와 예결위원 일부가 지역구 예산을 대거 챙겼다는 비판 여론이 내부에서 확산될 경우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야4당 소속 정치인들이 16일 오후 부산역에서 열린 '부산시 상수원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식수대책 촉구 시민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준영 "국비 줄었지만 道 편성 예산 늘어"

농민단체 "세출예산 전년보다 1400억 삭감"

■ 전남도 내년 농정예산 진실 공방

전남도의 내년도 농정 예산과 관련, 전남도와 전남도의회 주장이 서로 달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농민단체가 "'농도(農道)'전남이라는 전남도가 농업예산을 1000억원이나 삭감했다"며 도민 대의기구인 전남도의회를 찾아 예산안 처리를 가로 막기 위해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진 상황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오히려 늘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서로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농정 예산 삭감 문제다. 농민단체측은 내년도 농림식품국 관련 세출예산(8096억6735만5000원)이 전년도(9519억8915만6000원)에 견줘 1423억2180만1000원(14.9%)이나 삭감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는 국비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전남도가 농민 처우 개선 및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자체 추진했던 42개 사업(96억1300만원) 예산을 없애는가 하면, 34개 사업의 경우 일부(18억8100만원)를 삭감한 내역이 포함됐다.

도의회 의원과 농민단체가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알겠지만 도비까지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사실상 전남도의 '농업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도 성명을 내고 농업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을 통과시킨 전남도와 도의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는 특히 "도비 자체사업은 애초 예산안에서 50억원이 삭감됐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증액, 12억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남도는 내년도 농업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에는 전년도에 비해 9.8% 늘었다고 반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박준영 지사가 직접 나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11.6% 늘었다"고 반박했다.

박 지사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비보조예산이 1011억 줄어든 것은 있지만 전남도가 편성한 농업예산은 한푼도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활력사업과 배수개선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국비가 1011억 줄어들었지만 미래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R&D 사업(158억 증액)과 농촌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농촌개발분야사업(265억 증액)예산이 늘어난 만큼 '농정예산 축소'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 자체사업도 줄어든 게 아니라 극히 일부에게 지원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융자를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이를 위해 관련 기금을 185억원을 늘려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오히려 12억이 늘었다고 했다.

박 지사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농촌에 간접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해 전남의 내년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與 개혁파 "물리력 동원 법안처리 거부"

"강행처리땐 19대 총선 불출마"… 靑 밀어붙이기 제동

초선의원 15명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 23명이 예산안 단독 날치기 처리와 관련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앞으로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바로 세우기를 다짐하는 국회의원 일동'을 표방한 이들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자성과 결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못지키면 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예산안 강행처리에 동참함으로써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반성한다"며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심의·의결하지 못했고 법안처리에서도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홍정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시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국익과 국격에 대한 논의가 난장판 정치와 거수기 국회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한미FTA에 공감하지만 정부가 설득노력을 해야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성명에 참여한 만큼 (외통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한미FTA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우리 23명이 빠지면 171석을 가진 한나라당 단독의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안된다. 이제 18대 국회에서 단독처리는 없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청와대발 밀어붙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예산안 파동을 전후해 잇따른 여권발(發) 악재로 인한 총선에서의 위기감을 보여준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성명참여 의원들은 4선의 남경필·황우여, 3선 권영세·이한구·정병국, 재선 신상진·임해규· 진영, 그리고 초선의 구상찬·권영진·김선동·김성식·김성태·김세연·김장수·배영식·성윤환·윤석용·정태근·주광덕·현기환·홍정욱·황영철 의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순천 복선화 조기 착공돼야"

'서남권 철도교통 방안' 토론회서 제기

전국 4대 간선철도망인 경부선·호남선·중앙선·경전선(慶全線) 중 경전선의 광주~순천 구간만 유일하게 노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경상도와 전라도 간 사람 및 물류 이동에 제약이 커 양지역 교류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광주시가 16일 오후 5·18 자유공원 내 교육관에서 개최한 'KTX 90분 시대, 국토서남권 철도교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학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KTX 90분 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도의 2014년 개통과 함께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가 조기 착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서남권 등 낙후지역의 철도 기반시설이 뒤져 있는 것은 사업추진 여부가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해 좌우되는 투자평가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분석을 종합 고려한 새로운 철도투자 평가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철도망인 경전선의 삼랑진~마산 구간은 지난 15일 복선전철 개통식을 가져 향후 고속철도가 본격 투입되고, 마산~순천 구간 역시 2014년까지 복선전철화가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정 교수는 광주~순천 간 복선전철화가 2015년 이전에 착수돼야 기존 4시간2분이 소요됐던 광주~부산 간이 1시간40분으로 앞당겨진다고 밝혔다. 최완석 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최동호 광주대 교수, 이승용 하남산단관리공단 총무부장, 송재호 광주송정역장, 박남언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순천 간 경전선 복선전철화가 조기 착공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천 수질 개선 국비지원율 상향을"

광주시가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천의 수질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정부에 국비지원율 상향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천 수질악화의 주범인 생활하수에 대한 수질개선이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핵심이며, 이를 위한 소요사업비 2조6084억원의 71%인 1조8602억원을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산강은 한강, 낙동강과 달리 상수원으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개선사업에 국비 투자가 거의 없어 갈수기인 3~5월에는 5급수(광주~나주 경계, 승촌보 기준) 수준으로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천 및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관거 우·오수분류식 시설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 ▲초기 강우시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등 갖가지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성공한 남자의 손목에는 언제나 JAKAL-

'35년 전통' 수공예 명품시계

오성코리아는 최근 35년 전통의 겔런트 시계가 야심차게 만든 100% 수공예 시계 '쟈칼 핑크골드 빅워치'를 출시했다. 300점만 한정 생산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가격대비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우선 디자인이 수백만원대의 해외 명품시계 못지않다. 도금부터 옐로우 골드가 아닌 핑크골드로 처리해 세련미를 더했다. 미네랄 라운드 강화유리를 채용해 스크래치 걱정이 없으며 최고급 소가죽 밴드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아라비아 숫자판과 버클과 밴드에 쟈칼 로고를 새겨 넣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또한 철저한 A/S도 장점이다.

기능도 한 층 강화됐다. 일본 완제품 자동 무브먼트와 기계식 작동원리를 채용했다. 날짜와 요일표기는 물론 년·월·일 표기, 낮과 밤 표기 기능까지채용해활용성이높다.

회사 관계자는 "300대만 한정 생산하는 제품으로 희소성이 높고 가격이 합리적이면서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 벌써부터 반응이 뜨겁다"며 "남자의 멋을 한층 돋보이게 제작 됐으면서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

300점 한정 생산 판매
자동기계식 명품시계

〈MADE IN KOREA〉
02-522-7667

2010년형 금영이 만든
새로운 DVD노래방

가정에서 노래방, 영화, 음악감상, 찬송가까지 부르는 즐거움, 보는 감동까지 느낌이 다르다

즐겁게 부르는 노래는 '치매'를 예방합니다

노래방기기 1등 기업인 금영은 최근 가정에서도 노래방과 똑같은 환경으로 즐길 수 있는 2010년형 'DVD 노래방기'를 출시했다. 노래방에서와 같이 큼지막한 가사와 고화질 영상이 나오는 화면을 보며 2개의 마이크로 두엣 곡을 부를 수 있는 제품이다. 노래 곡 수도 시중 노래방과 같은 수준인 2만8000곡으로 국내 최대곡이 내장돼 있다.

일반 대중가요는 물론 트로트·팝송·일본가요 등이 들어있고 초등학교 동요도 수록했다. DVD 플레이어 기능이 있어 고화질 디지털 영화 감상과 음악 감상도 가능 하여 가정과 업소용 모두 만능 제품이다.

▶ 효도선물 1위 금영 노래방

이 제품은 노년에 쓸쓸한 부모님 효도 선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연말 연시 가족모임이나 생일파티 등에 안성맞춤이다. 해외 교포 선물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 정품마이크 2개, 대형 리모컨, 노래책자 제공

구입문의 02-522-4355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외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지상 건물 총연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찜질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업협동조합
안강농업협동조합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010-8494-9484